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481 (요르단 강에서)	92 (구세주 내 천주여)	97 (구원의 메시아)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제 1독서 | 바룩 5,1-9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걸음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네 머리에 쓰라.>

화답송 |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좌)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우)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좌)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겍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우)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제 2독서 | 필리피서 1,4-6.8-11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루카 3,1-6



Today's Gospel - Luke 3:1-6

In the fifteenth year of the reign of Tiberius Caesar, when Pontius Pilate was governor of Judea, and Herod was tetrarch of Galilee, and his brother Philip tetrarch of the region of Ituraea and Trachonitis, and Lysanias was tetrarch of Abilene, during the high priesthood of Annas and Caiaphas,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the son of Zechariah in the desert. John went throughout the whole region of the Jordan, proclaiming a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forgiveness of sins,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words of the prophet Isaiah:

A voice of one crying out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his paths.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and every mountain and hill shall be made low.

The winding roads shall be made straight, and the rough ways made smooth, and all flesh shall see the salvation of God.”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십오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래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라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카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즈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

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Pope Francis' Homily>

To prepare the way for the Lord's coming, it is essential to consider the requirements of conversion that the Baptist calls us to embrace. What are these requirements for conversion? First, we are called to fill the 'valleys' created by coldness and indifference by opening our hearts to others with the same sentiments as Jesus—affection and fraternal attention that respond to the needs of our neighbors. These 'valleys' of coldness must be filled. A relationship of love, charity, and fraternity with our neighbors cannot flourish if there are 'gaps,' just as a road with many potholes is difficult to travel. This demands a change in attitude, one marked by a particular care for those in greatest need.

Next, we must address the indifference caused by pride and arrogance. How many people, perhaps unknowingly, are proud, indifferent, or lack genuine kindness in their relationships! Overcoming this requires concrete acts of reconciliation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cluding asking for forgiveness for our faults. Reconciliation is not easy—it often raises the question, “Who will take the first step?” The Lord assists us in this if we approach it with goodwill. True conversion is only complete when it leads us to humbly acknowledge our mistakes, infidelities, and shortcomings.

가톨릭 사회 교리란?

교회는 인권 주일로 시작되는 대림 제2주간을 2011년부터 사회교리 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느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지요. 하지만 교회는 신앙인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며,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이처럼 공동체적 삶을 살아야 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지침이 됩니다.

교회는 역사 속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인간 존엄성이 바탕이 되는 민주적 정치 체제와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억압과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가 공동선을 위한 최전선에 나섰던 것은 바로 교회가 가르치는 사회교리의 힘이었습니다. “교회가 왜 세속의 일에 간섭하느냐?”며 성당으로 들어가 기도나 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교리의 중요성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분명히 국가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

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해서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하다”(「사목헌장」 76항)고 선언합니다. 분명 정의로운 사회는 교회가 아닌 정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선의 요구에 마음을 열고 의지를 불러일으키도록, 교회는 정의 증진을 위한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인정받지 못하고 침해받는 권리들, 특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약한 이들의 권리를 판별하고 수호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사회교리는 ‘믿음 교리’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인도하는 ‘지킬 교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개인의 성화를 위한 노력에만 머물지 않고 이웃과 친교를 나누고 봉사하며, 공동체로서의 사회와 공동선을 위해 헌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가정과 생명, 성(性),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노동과 인권, 평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신앙인이 지켜야 할 원리와 윤리 준칙, 가치관을 제시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 복음의 기쁨, 182항-183항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182항. 현세의 가변 상황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새로운 발전이 더 필요하고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것으로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구체적인 가르침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일반론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침들이 “복잡한 현 상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실질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 학문의 기여를 받아들여, 교회의 사목자들은 인간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복음화 사명은 모든 인간 존재의 전인적 진보를 포함하고 또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야 하고 오로지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준비하기 위해서만 종교가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녀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부르시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려고”(티모 6.17), 곧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특히 “사회 질서와 공동선 추구하고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183.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가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국가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라고, 국가 사회 제도의 안녕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콜카타의 데레사 복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도록 이를 성당 안에 가두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러한 주장을 용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결코 안락하거나 완전히 개인적일 수 없는 것으로서,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전달하며 이 지구를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물려주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확실히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가 정치의 핵심 임무이지만,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가리켜 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심에서 나오는 희망을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이와 동시에, 그 사상은 가톨릭 교회가 교리의 성찰 단계든 실천 단계든, 사회 분야에서 다른 교회들과 교회 공동체들의 노력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지 사항

1. 대림시기 고해성사

이 치유와 화해의 성사는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심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며,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하는 자리입니다. 대림시기를 맞이하여 하느님께 한발짝 더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고해성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주임신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시기 고해성사 - 소공동체 반 순서>

- * 12월 8일(주일) - 마르코반
- * 12월 15일(주일) - 루카반
- * 12월 22일(주일) - 요한반

2. 시즌 여정 2 - 영적독서 나눔

- * 모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묵주기도 후
독서 모임을 위하여 다음 부분을 읽어주세요
- * '예수의 생애' - 201p까지
- * '주님과 함께하는 10일의 밤' - 넷째 밤 챗터

3. 2025년 사목회위원 교체

그동안 우리 캔버라 한인 성당을 위하여 봉사해주신 사목회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요한 반: 강원혜 아델
- * 루카 반: 한정민 세실리아
- * 마르코반: 최서연 아네스
- * 마태오반: 이재희 루시아

'2025년도 사목회'에 함께 해 주시는 다음 사목 위원분들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요한 반: 김미현 보나
- * 루카 반: 허준 안토니오
- * 마르코반: 김희진 아델라
- * 마태오반: 최원미 클라라

4. 반주 및 독서 봉사자 모집

봉사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전례분과장님께 (김수현 수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11월 24일	유아·청소년: 11명, 성인: 40명
12월 1일	유아·청소년: 6명, 성인: 38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2월 8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다음주 (12월 15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2월 8일)	요한반
다음주 (12월 15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11월 30일 ~ 12월 6일)

봉 헌 금	\$ 237			
교 무 금	\$ 820			
구민식	권모순	김천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주정자	최원미	황병욱
허준				

| 기도 지향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고다인 라파엘라의 건강을 위해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